



임실군이 갈담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침수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이 마련됐다.

강진면, 변화의 바람 '주목'

297억원 들여 갈담천 재해예방사업 마무리 60억 투입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순항

임실군 강진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임실군이 갈담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침수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이 마련됐는가 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쉼터도 조성되어 화합과 소통의 사랑방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농촌지역을 거점화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는 3년 후쯤이면 강진면은 성공한 농촌마을 모델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면 강서마을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주민쉼터가 조성돼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9월, 사업을 시작해 이달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 주민쉼터는 댁주

변 정비사업비를 통해 조성된 편의시설로서, 주민들의 일상에 더없는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컸던 강진면 소재지 주민들을 위한 갈담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5년만에 마무리됐다. 강진면 회진리와 부흥리 일원에 총 297억원이 투입돼 추진된 이 사업을 통해 강진면 주민들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군은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하천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작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면소재지에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을 확충,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면소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거점공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기초생활과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세가지 테마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강진면에는 복지회관과 공영주차장, 강나루 생태로 놀이터, 주민역량 프로그램 교육,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진면은 흥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지역 모델로 우뚝 서며, 임실군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촌마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관광자원 고도화 국비확보 총력

시장 권한대행 체제, 차질 없는 사업추진 노력

강북대 남원시장 권한대행은 국비확보를 위해 최근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합과우 유원지 옛다솜 이야기원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22억을 요구하였으며, 광한투원 주변 예촌 지구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해 가기 위해 국비 29억원을 요청하였다.

이는 옛다솜 이야기원과 김병중 미술관, 합과우 소리체험관, 천문대, 춘향테마파크 등을 벨트화 하고 남원

광한투원과 광한투원 주변 볼거리를 연계하여 남원을 체류형 관광으로 고도화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구체화 하기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 훼손 문화재 보존과 역사적 상징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비를 요청하였다. 남원읍성 복원을 위한 국비 16.8억,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2.5억, 가야문화 복원 발굴을 위한 국비 28억 등을 지원 요청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강북대 남원시장 권한대행은 정부 예산안이 5월 25일 기재부로 제출되는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원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공조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남원시 4차 지식산업 고도화를 위한 화장품기업 전문 지식산업센터 건립, 월라정수장 개량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방안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말형태 블루베리막걸리 개발 성공

순창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 호평

순창군이 분말형태의 새로운 블루베리 막걸리를 개발해 상품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블루베리 발효 분말막걸리'는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을 통해 개발했으며 최근 서울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에 출품해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1주일 정도로 짧은 반면에 분말형태로 만들어져 장기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눈에 띈다. 유통기간이 짧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막걸리를 대체해 수출 주력상품으로 가능성이 크다.

순창에서 생산된 쌀과 두류 품종의 블루베리를 사용하였고,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효모를 활용해 개발했다. 언제 어디서나 블루베리 발효 분말막걸리에 물을 붓고 하루 정도

를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풍부한 생막걸리를 먹을 수 있다는 편리성도 큰 장점이다. 특히 블루베리 분말에 탄산 발효기술을 적용해 막걸리의 청량감을 높여 젊은층의 취향을 맞췄다.

군은 일단 시제품이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상품화에 성공하면 지역 블루베리 등 산물 판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에 참여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순창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향토명품화사업은 순창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블루베리의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 했다"며 "앞으로도 블루베리 등 순창 향토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지역 농산물 판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보건소, 31일까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유통 행위 근절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대비해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 70개소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는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

물용마약류 등)을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마약과 불법유통 및 오·남용이 심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성분 23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마약류로 지정돼 상세취급내역까지 추적하고 집중 관리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귀농귀촌 도시민 귀농학교

임실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학교를 열었다.

군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도시에서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귀농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수도권 도시민 귀농학교는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2회로 나누어 추진된다.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로 임실군의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농촌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도시민 귀농학교 교육에선 필봉농약전문관에서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임실군 역사와 문화 강의, 선배 귀농인과의 간담회가 마련됐다.

특히 방울토마토와 고사리, 오이, 표고버섯을 경작하는 농장 4곳과 임실치즈마을도 방문하여 선도농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민들이 임실군의 지원정책 등 다양한 강의 및 견학을 통해 임실군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귀농·귀촌 선택에 도움을 주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이번 교육 참가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귀농·귀촌 효과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토대로 하여 향후 더욱 알차게 짜임새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Line4하모니' 경찰청 우수현장학습모임 선정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의 현장학습모임 'Line4하모니' 활동이 순창경찰의 변화를 이끌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경찰서에 따르면 10명의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Line4하모니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쿨렐레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마중물로 딱딱한 치안현장에 밝고 경쾌한 환경과 음악이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기존 경찰홍보방식을 탈피하고 기능 간 협업과 조화로 효과적인 홍보방법과 따뜻하고 친근한 경찰이미지 부각 등 경찰 홍보문화개선을 위해 2016년 4월 결성되었다.

Line4하모니 회원들은 지역 내 순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과 경찰서 주관 행사시 공연을 통해 경찰홍보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활력적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딱딱한 경찰홍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2018년 경찰청 선정 현장우수학습 모임'에 선정되어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